

# 공공갈등 상황에서 문화성향, 갈등인식과 조정유형이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

- 밀양 송전탑 갈등 위기에 대한 분석 -

The Effects of Cultural Biases, Conflict Perceptions, and Mediation Types on Willingness to  
Negotiate in the Context of the Public Conflict

- An Case of the Miryang High-Voltage Transmission Tower Conflict Crisis -

Yung Wook Kim\*, Seung Kyung Ham\*\*

School of Communi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cultural biases, conflict perceptions and mediation types affected willingness to negotiate for solving conflicts in the context of the public dispute. The study investigate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cultural biases and conflict perceptions in the first phase, and the impacts of these variables on willingness to negotiate under different mediating situ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hierarchical and egalitarian biases were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value-related conflicts, and the fatalistic bias had an effect on interest-related conflicts. Conflicting parties with an individualistic bias expressed a strong willingness to negotiate both facilitative and evaluative mediation. On the other hand, conflicting parties with an egalitarian bias showed a strong willingness to negotiate only when they had a low level of the perception toward value-related conflicts in the situation of evaluative medi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conflict perceptions operate as moderating variables resulting in willingness to negotiate by interacting with cultural biases and mediation types.

**Key words:** cultural theory, mediation, conflict perception

---

\* The 1st author. Tel. +82-02-3277-2237. E-mail. kimyw@ewha.ac.kr

\* The second author. Tel. +82-02-3277-2237. E-mail. hamsenyung@gmail.com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an. 8, 2015 / Revised: Feb. 24, 2015 / Accepted: Mar. 20, 2015

### 국문초록

문화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위계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로 구분되는 문화적 성향에 따라 자연관, 인간관, 위험관 등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 연구는 문화이론을 공공갈등 상황에 대입해 문화적 성향에 따른 갈등 인식이 조정 상황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의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위계주의와 평등주의는 가치 갈등 인식과 관련이 있었고, 운명주의 성향은 이익갈등과 관련이 있었다.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갈등 당사자들은, 촉진적 조정과 평가적 조정 모두에서 협력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명주의 성향이 낮은 갈등 당사자들은 촉진적 조정에서 가치갈등 인식이 낮은 경우 협력의지가 높았고, 평등주의 성향이 높은 갈등 당사자들은 평가적 조정에서 가치갈등 인식 수준이 낮아야 협력의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 조정 유형에 따라서 갈등 당사자의 갈등인식은 문화적 성향과 상호작용해 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매개변인 역할은 미미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이고 문화적인 함의를 논의했다.

**주제어:** 문화이론, 조정, 갈등인식

## 1. 서론

밀양송전탑 건설 사업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에서 밀양시 구간의 건설 사업을 말한다. 2009년 사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주민 쉼기 대회를 시작으로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다. 이후 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해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 협상이 완료되기도 했지만 2012년 1월 주민의 분신자살 이후 지역 문제가 전국적 현안으로 확산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분신 사건으로 중단된 공사가 2013년 공사가 재기되면서 반대 주민들과 갈등은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밀양법’으로 불리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켜 보상 규정을 마련했지만 주민 반발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 2014년 12월 착공 6년 만에 송전탑이 완공되었다. 하지만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시운전을 앞두고 반대주민들은 공사과정에서 일어난 폭력행위를 사과하고 객관적인 피해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하라며 농성 중에 있다. 2009년부터 표면화된 밀양 송전탑 갈등은 2015년 1월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밀양 송전탑과 같은 공공갈등은 이해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갈등의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대규모 갈등을 유발하거나 갈등 해결이 어렵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1): 37). 따라서 갈등이 확대될 경우에 비용과 시간적 손실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갈등 당사자들 간에 상처와 불신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공공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고, 상호 협의를 유도할 수 있는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때 제도적 접근의 갈등관리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대안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다. 사법적 절차와 달리 갈등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갈등 해결 절차를 결정할 수 있고, 과거의 과실을 규명하기보다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분쟁해결법이라고 할 수 있다(Mackie, 1991: 87). 그 중에서 제3자가 개입해 갈등 당사자들의 대화와 협력을 통

해 합의 형성을 유도하는 조정(mediation)이 주목받는다.

그러나 밀양 송전탑 갈등 사례와 같은 경우, 조정이 효율적인 갈등해결기제로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신은중, 2010). 특정화되지 않은 갈등 당사자, 이익과 가치 갈등의 혼재, 높은 갈등 강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원인은 사법적인 분쟁해결이 아닌 대안적인 분쟁 해결방법으로서 조정이 주목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제도의 도입 이유가 제도의 한계로서 작용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공공갈등 해결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기도하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는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는 갈등 당사자, 특히 갈등 당사자의 갈등 이슈에 대한 인식에 주목했다.

문화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통해 공유된 신념과 가치인 문화적 특성은 자연, 인간본성, 기술에 대해 다른 태도를 형성한다(Thompson, *et. al.*, 1990: 5-11). 문화적 성향으로 구분된 위계주의자, 개인주의자, 평등주의자, 운명주의자는 고유하게 형성된 세계관을 통해 자연 개발, 기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형성한다. 문화이론에 근거한 각기 다른 문화적 성향은 공공갈등에 관여된 갈등 당사자들의 갈등에 대한 문제 인식과 그에 대한 해결 방식에 적용해 볼 수 있다. 공공갈등의 갈등 대상인 갈등 이슈가 환경 개발, 시민의 권리, 위협의 인식, 경제적 보상 등 갈등 당사자의 자연관, 인간관, 기술관 등에서 파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밀양 송전탑 갈등의 조정 유형에 따라 갈등 당사자들의 문화적 성향과 그에 따른 갈등 인식이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의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색해본다. 문화이론에 근거해 갈등 당사자들의 문화적 성향이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조정자의 역할에 따라 구분되는 촉진적, 평가적 조정 상황에서 갈등 당사자들의 문화적 성향과 갈등 인식의 상호작용을 밝히고, 나아가 갈등 당사자들의 갈등 인식은 문화적 성향과 협력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함으로써 문화적 성향과 협력의지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겠다. 이를 통해 정책과 보상 등 거시적 차원의 논의에 집중함으로써 간과되었던 갈등 당사자 중심의 미시적 차원의 접근이 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겠다.

## II. 문헌연구

### 1. 공공갈등과 협력의지

공공갈등은 갈등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당사자가 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법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국민 또는 공공기관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대립과 분쟁이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39). 공공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정책 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이를 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합의 부재의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공공갈등은 이해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

다는 특징이 있다.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이 크고 다양할 뿐 아니라 간접적 이해 관계자까지 확대하면 당사자의 범위가 전체 국민이 되는 경우도 많다. 공공갈등의 또 다른 특징은 갈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대규모 갈등을 유발하거나 갈등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갈등이 확대될 경우에 비용과 시간적 손실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갈등 당사자들 간에 상처와 불신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공공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고, 상호 협의를 유도할 수 있는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갈등 당사자는 갈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개인, 집단, 조직 혹은 정부를 가리킨다. 갈등 해결에서 당사자 요인을 당사자의 수, 당사자 유형 등 외적인 특성들이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하혜영, 2007). 갈등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이익을 얻으려는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고 부서간 갈등보다는 정부와 주민간 갈등 해결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환경, 위협, 과학, 기술에 대한 태도와 같은 가치관적 측면도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김서용, 2005). 따라서 당사자의 범위가 국민 전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공공갈등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공공갈등의 유형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으로 구분하며(Kriesberg, 2003: 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좀 더 세분화해 관계적 갈등, 데이터 갈등, 구조적 갈등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Moore, 2003: 64-65). 한정된 자원과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의 불균형에 비롯되는 이해 갈등은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에 민감하며,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이나 불편부당에 의해 영향 받는다. 가치갈등은 상이한 두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양립하기 불가능한 경우로, 가치관을 형성하는 신념이나 종교, 문화와 세계관,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발생한다. 사실관계 갈등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조사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당사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견해에서 장, 단점을 확대 축소 해석하는 갈등이다. 구조적 갈등은 부적합하거나 왜곡된 제도, 규제, 관습, 힘의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야기된다(신창구, 2014: 50-52).

갈등 해결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의 해결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갈등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가는 협력과정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Laue, 1990).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효과는 갈등 당사자들 간에 합의안이 도출되었는지, 당사자들이 합의안을 수용하였는지 혹은 만족하였는지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하혜영, 2012). 반면 갈등 해결을 협력 과정으로 보는 접근은 갈등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도달했는지를 측정한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1): 83) 쌍방향 균형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공중관계 연구에서 갈등 해결은 조직과 공중 간의 갈등 해결을 하고자 하는 협력 의지(willingness to negotiate)로 평가한다. 협력의지는 갈등의 상대와 협의하고, 공통의 이슈를 토론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제안들을 교환하고자 하는 상태로 정의된다(Stein, 1989).

## 2. 갈등 당사자의 문화적 성향과 갈등인식

갈등에 대한 인지적 접근은 갈등이 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사자의 인식 차이라고 간주한다(Maxell, 2000). 이러한 접근은 사회갈등을 객관적 구조와 제도적 틀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당사자들의 주관적 인식과 틀을 이해하려고 한다. 문화적 성향(cultural bias)으로 개인의 가치 신념 감정을 구분하는 문화이론은 합리적 선택 행위로 설명되지 않는 공공갈등 해결의 불가해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김서용, 2005).

문화이론은 문화가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적 성향과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져있다고 본다. 사회적 관계의 특정한 유형이 고수되면 공유된 가치, 신념, 감정인 문화적 성향이 형성되고, 문화적 성향은 그에 부응하는 사회적 관계를 정당화시키면서 사회를 유지시킨다(Thompson, *et al.*, 1990: 1-5). 문화적 성향은 그리드(grid)와 그룹(group) 지향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된다(Douglas & Wildavsky, 1982; Lanford, *et al.*, 1999; Thompson, *et al.*, 1990). 높은 그룹과 높은 그리드 특성을 가진 위계주의자(hierarchists), 높은 그룹과 낮은 그리드 특성을 지닌 평등주의자(egalitarians), 낮은 그룹과 낮은 그리드 특성을 지닌 개인주의자(individualists), 그리고 낮은 그룹과 높은 그리드 특성을 지닌 운명주의자(fatalists)로 나뉜다.

각각의 문화적 성향은 상이한 자연관을 형성한다(Thompson, *et al.*, 1990:25-37). 위계주의자는 자연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면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평등주의자들은 유한한 지구를 모두가 동등하게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개인주의자들은 자연을 경제적 발전의 도구로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훼손된 자연의 복원을 낙관한다. 운명주의자는 자연을 통제 불가능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문화적 성향에 따른 자연관은 기술관과 연결된다. 평등주의자들은 기술의 발전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간주한다. 반면 위계주의자와 개인주의자들은 기술 발전에 대해 낙관적이다. 위계주의자들은 기술의 위험이 전문가들에 의해 통제될 것이라고 믿고 개인주의자들은 기술을 경제적 풍요를 확장시켜줄 도구로 인식한다.

문화이론에서 제기하는 문화적 성향에 따른 자연관, 기술관의 차이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연결된다(Langford, *et al.*, 1999). 위계주의자는 위험을 집단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규범을 반영해서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본다. 반면 평등주의자는 위험 문제에 대해 위험 관련한 조직이 생산하는 정보를 신뢰하지 않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개인주의자는 위험문제가 개인의 문제이며 개인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위험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인식한다(김영욱, 2014).

문화적 성향에 따른 자연관, 기술관, 위험인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공공갈등 문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공갈등 현안에서 문화적 성향은 자연환경, 위험,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김서용, 2005). 문화이론에서 제기하듯이 위계주의와 개인주의는 반자연환경관, 친위협, 친과학기술관과 관련이 있고, 평등주의는 친환경관, 반위협, 반과학기술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와 보수의 정치이념이나 후기산업사회의 탈물질주의가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문화적 성향은 성장한계, 인간중심주의, 생태위기 등의 환경 가치, 신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박종민 외, 2005). 이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처방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발과 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논쟁 혹은 사회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적 성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3. 갈등관리 방식으로서 조정

공공갈등 관리는 전통적 접근과 대체적 접근으로 구분된다(Susan & Kennedy, 2001/2010). 전통적 방식은 사법적 판결이 대표적으로 재판을 통해 사법기관이 강제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체적 관리 방식은 협상, 조정, 중재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조정(mediation)은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들 간 타협과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Wall, *et. al.*, 2001). 조정은 협상과 달리 제3자가 개입하지만 갈등 당사자들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다(김영옥, 2015: 123-125). 당사자들의 편의에 따라 갈등 해결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고, 과거의 과실을 규명하기보다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분쟁해결법이다(Mackie, 1991: 87).

공공갈등 조정은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과 신뢰 회복, 그리고 공통의 목표를 설정해 합의하도록 유도한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2): 378-381). 정부나 공공기관은 반대편인 공중에 비해 정보력, 자원 활용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조정자는 당사자 간 힘의 균형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공공갈등에서 당사자 입장은 명분이 되어 그 명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집단의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인식하고, 협상이 결렬되거나 관계 악화로 이어진다. 이 때 조정은 갈등 국면을 당사자들의 관심사로 전환시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법적 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해관계 및 가치관이 대립되는 복합 갈등인 경우에도 조정이 대안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는다(정정화, 2012).

조정자는 판사나 중재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결과에 대한 정식 권한이 없고, 해결안을 제시할 수 없다. 조정자의 역할은 당사자 간의 교섭과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쟁의 이슈를 이해하고, 잠재적 타협안을 확인하며,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를 위해 양보하도록 유도한다(Moore, 2003: 15-20). 조정자 역할에 대해서는 조정 과정에서 비결정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한다는 측과 당사자들의 모든 관심사에 공정하게 관심을 가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나뉜다(Wolff, 1964).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도 조정은 개입 수준에 따라 조정자의 역할이 매우 수동적 입장에서 조정과정을 주도하고 규칙을 제안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을 유도하는 적극적 개입자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Gulliver, 1979). 중재와 재판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조정자의 중립성을 중시하지만(Bernard, *et.*

al., 1984), 중립성과 불편부당성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문용갑, 2011: 89). 조정자의 적극적 개입을 허용하는 측에서는 조정자가 당사자의 관심사와 규범적 기대를 충분히 이해해서 당사자들의 요구를 명료화하는 것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합의를 도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리스킨(1994)은 조정의 실무와 이론화를 지향하면서 조정자의 역할에 따라 평가적 조정과 촉진적 조정으로 구분하고 문제에 따라 협의와 광의 조정으로 분류해 조정 유형에 대한 체계적 분류를 시도했다. 촉진적 조정은 당사자들이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Levin, 2000). 문제해결의 장벽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부족에서 기인한다(Birke, 2000). 따라서 당사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와 협력할 수 있고, 조정자보다 당사자가 스스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Riskin, 1994). 촉진적 조정은 조정자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데, 제3자인 조정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당사자들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며, 이슈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하도록 지원한다(Carole, 2004). 촉진적 조정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과를 판단하지 않는다.

반면 평가적 조정은 조정자가 분쟁의 핵심적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제안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낸다(Lowry, 2004). 평가적 조정자는 당사자들의 협상 지위를 동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전략을 사용한다(Burns, 2001). 갈등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비현실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자는 갈등 당사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재평가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Birke, 2000). 평가적 조정 내에서도 비직접적 평가적 조정은 당사자 협력을 중시하지만 합의 실패 시를 위한 제안을 준비해 이를 수용하도록 권고한다(Riskin, 1996). 직접적인 평가적 조정은 양측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지위에 근거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당사자들이 특정 제안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Bush, 2002).

갈등 해결을 위해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는 조정은 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Wall, et al., 2001). 조화를 강조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조정을 선호하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적인 성격의 중재를 선호한다(Gire & Carment, 1993). 동양권 조정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동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조화를 형성하는 전략을 사용해 당사자들 체면을 유지하고 보호한다(Baine & Sawatzky, 1991). 뿐만 아니라 갈등 당사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반면 서구의 조정자들은 동양의 조정자들보다 압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화권에 따라 조정자들에게 부여하는 권력 위임 정도에 따른 것으로 동양 사회에서는 조정자들이 권력 위임 정도가 높은 반면 서구 사회에서 조정자들은 권력 위임정도가 낮기 때문이다(Wall & Stark, 1998).

공공갈등 상황에서 조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할 때 조정자 역할과 문화적 성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위계적인 규범을 거부하는 평등주의자와 집단주의적인 가치와 연결하기를 거부하고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자들은 갈등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중요시하는

촉진적 조정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조정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평가적 조정은 기존체제를 신뢰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위계주의자와 집단주의적인 결속력은 없지만 사회로부터 가해지는 제한에 순응하는 성향을 보이는 운명주의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 4.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공공갈등 상황에서 갈등 당사자들의 문화적 성향과 갈등 인식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해 제3자가 개입되는 조정 유형에 따라 갈등 당사자의 문화적 성향과 갈등 인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알아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 갈등인식이 당사자의 문화적 성향과 협력의지의 인과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문화이론에 의하면 문화적 성향에 따라 개인과 집단은 자연관, 인간관, 기술관의 차이를 보인다 (Thompson, *et. al.*, 1990: 5-11). 위계주의자와 개인주의자에게 자연은 통제의 대상이며 개발을 통해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간주한다. 반면 평등주의자는 자연을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운명주의자는 자연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자연관은 위험을 인식하는 차이로 연결된다 (Langford, *et. al.*, 1999). 문화적 성향에 따라 자연, 기술, 위험 문제에 대해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공갈등의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환경문제와 불확실한 위험의 문제가 대두되는 공공갈등 상황에서 갈등 당사자들은 문화적 성향에 따라 갈등 현안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갈등 당사자들의 문화적 성향은 갈등 유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에서는 연구문제 1에서 갈등 당사자의 문화적 성향과 이에 영향 받은 갈등인식이 상호작용해 협력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본다. 그리고 갈등 당사자의 문화권에 따른 조정의 차이를 검증한 선행 연구들에 근거해 조정 유형에 따라 협력의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볼 것이다. 즉 조정 유형, 문화적 성향 그리고 갈등인식의 상호작용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2: 조정유형에 따라 갈등 당사자의 문화적 성향과 갈등 인식이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에서는 문화적 성향이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갈등인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검증했다. 문화적 성향이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 갈등인식이 문화적 성향과

협력 의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 변수가 될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 선행연구들이 공공갈등 상황에서 문화적 성향이 문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는데(Baine & Sawatzky, 1991; Gire & Carment, 1993; Wall & Stark, 1998; Wall, *et. al.*, 2001;), 이 연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문화적 성향이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즉 문화적 성향과 갈등인식간의 관계와 갈등인식과 협력의지간의 관계를 통해서 문화적 성향이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갈등인식이 매개하는가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3: 갈등 당사자들의 갈등 인식은 문화 성향과 협력의지 간에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방법

2013년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갈등 과제추진 현황 중 집중관리 과제로 갈등이 진행 중인 7개 과제 중 하나인 밀양 송전선로 건설(중앙선데이, 347호)을 분석대상으로 정했다. 밀양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원인은 전자과 영향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경과지 선정과 보상 방식 그리고 설치 대안과 지역 영향 등으로 분류된다(이선우·홍수정, 2012; 조성배, 2012). 홍석만·최홍석(2008)의 연구에서는 주민과 한국전력 공사 직원들의 갈등 원인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주민들은 전자과 위험(33.7%)과 자연경관의 침해(27.0%)를 반대 이유로 응답한 반면 한국전력공사 직원은 주변 지가하락(38.3%), 해당 지역의 토지 보상 미흡(25.1%)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전자과 위험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송전탑 설치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의식 균열, 보상 문제와 관련한 재산권 침해를 밀양 송전선로 갈등의 주요 쟁점으로 간주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연구 설계는 평가적 조정을 받은 집단과 촉진적 조정을 받은 집단으로 분류해 설문을 실시했다. 조정 유형은 평가적 조정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과 촉진적 조정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으로 나뉘었다. 촉진적 조정에서는 조정자는 당사자들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역할로 구성했다(Riskin, 1994). 평가적 조정 시나리오에서 조정자는 갈등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제안하는데 강제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성했다(Burns, 2001). 본 설문에 앞서 갈등 유형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했다. 평가적 조정 처치를 받은 집단의 결과, 처치 내용을 평가적 조정( $M=3.71$ ,  $SD=.451$ )과 촉진적 조정( $M=2.41$ ,  $SD=.735$ )으로 이해하는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촉진적 처치를 받은 집단에서도 처치 내용에 대해 평가적 조정( $M=2.03$ ,  $SD=.597$ )과 촉진적 조정( $M=3.55$ ,  $SD=.568$ )으로 이해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당도 검증을 마친 조정 유형의 시나리오가 두 개의 설문 집단에게 각각 배포되었다.

설문 참여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남녀를 2014년 8월 안전 행정부 인구 통계 기준으로 할당해서 표집했다. 설문은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평가적 조정과 촉진적 조정을 무작위 배치했다. 설문 참여자가 응답 도중 항목을 빠뜨리거나 시나리오를 읽지 않고 불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고려해 응답이 누락되면 다음 단계로 이행하지 못하게 조작했으며, 설문 내용을 읽지 않고 응답할 것을 우려해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다음 질문을 볼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평가적 조정 설문 집단은 20-29세 남녀 각각 22명과 21명, 30-39세 남녀 각각 24명과 24명, 40-49세 남녀 각 34명과 30명, 50-59세는 남녀 각 28명과 26명으로 총 210명으로 구성됐다. 촉진적 설문을 받은 집단은 20-29세 남녀 각각 22명과 20명, 30-39세 남녀 각각 27명과 24명, 40-49세 남녀 각 29명과 29명, 50-59세는 남녀 각 28명과 26명으로 총 20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총 417개의 데이터 중에서 총 410개의 데이터가 분석됐다.

## 2. 주요변인 측정

이 연구에서 주요 변인은 문화적 성향, 갈등 유형, 조정 유형 그리고 협력의지이다. 이들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법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 1) 문화적 성향

문화적 성향은 데이크(1992)가 사용한 20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위계주의는 권위, 질서, 군사력 등의 내용으로, “젊은 세대에게 좀 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남보다 엄격하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개인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능력주의 중시를 측정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 사회는 기업들이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평등주의는 부의 평등과 재분배, 권위주의 부정의 개념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국민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사회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운명주의는 운명, 불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남을 돕다가 원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 2) 갈등유형

갈등유형은 학자별로 차이가 있다. 크리스버그(2003)는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으로 구분했는데, 선행 연구(임동진, 2011; 임유진, 201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하혜영 외, 2007)에서 갈등 유형 분류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이해갈등과 가치갈등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가치갈등의 경우 이해 갈등적 속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경기개발연구원, 200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별적 갈등 사례로 갈등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이해와 가치 갈등이 혼재된 밀양송전탑 갈등을 단일 사례를 제시하고 설문 참여자의 갈등 인식을 이해갈등과 가치갈등으로 나누어 측정했다.

### 3) 조정유형

조정 유형은 조정자의 역할에 따라 평가적 조정과 자문적 조정으로 구분했다. 실험에서 평가적 조정 시나리오를 ‘시민단체는 직접 전자파 피해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합의안을 제시했다’, ‘조정자인 시민단체는 양측이 합의안을 수용하도록 여러 수단을 이용해 압력을 가했다’ 등 조정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조작했다. 반면 촉진적 조정은 ‘조정자인 시민단체는 조정회의를 열어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합의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에만 집중했다’ 등 자율적 합의를 측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내용으로 조작했다.

### 4) 협력의지

스테인(1989)은 협력의지를 갈등의 상대와 협의하고, 공통의 이슈를 토론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제안들을 교환하고자하는 상태로 정의했다. 이 연구에서는 크리스틴(2004)의 협력의지 측정 7개 문항에서 “ 다른 대안을 찾는 것보다 정부와의 협력이 낫다고 생각한다”,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의견 교환하는 것이 가치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정부 의견에 양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정부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의 4개 항목으로 재구성해 측정했다.

## IV. 연구결과

### 1. 시나리오 조작적 점검과 문화성향 분석 결과

평가적 조정과 촉진적 조정 각각 설문에 참여한 집단에서 조정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적 조정의 설문에 참여한 집단에서 평가적 조정(M=3.35, SD=.721)과 촉진적 조정(M=2.96, SD=.865)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한 것(F=4.184, p<.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촉진적 설문에 참여한 집단에서 평가적 조정(M=2.97, SD=.889)과 촉진적 조정(M=3.44, SD=.779)에 대한 평가 차이가 유의미(F=4.096, p<.001)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에 참여자들이 각각의 조정 상황에 대한 이해가 시나리오 의도대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데이크(1992)의 문화적 성향 평가문항으로 측정된 결과 촉진적 조정에서는 평균은 위계주의가  $M=3.55(SD=.591)$ , 개인주의  $M=3.91(SD=.573)$ , 평등주의  $M=3.98(SD=.574)$ , 운명주의  $M=2.85(SD=.640)$ 로 분석됐다. 평가적 조정에서는 각각의 평균이 위계주의  $M=3.48(SD=.553)$ , 개인주의  $M=3.86(SD=.573)$ , 평등주의  $M=3.8(SD=.571)$ , 운명주의  $M=2.91(SD=.620)$ 로 분석됐다.

## 2. 연구 문제 분석 결과

### 1) 문화적 성향에 따른 갈등 유형 인식의 차이

톰슨 외(1990)는 문화가 구성원들의 문화적 성향과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보았다. 공유된 가치, 신념은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개인이 갖는 문화적 성향이 모두 문화 유형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분석하는 데이크(1992)의 측정 도구가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보다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해 형성된 가치와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이론적 가정 하에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성향 측정을 통해 집단을 분류하지 않고 개인 내에 존재하는 다중 성향으로 간주했다.

연구문제1의 문화적 성향에 따른 갈등 유형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들의 위계, 개인, 평등, 운명주의 성향을 각각 측정했다. 그리고 갈등 인식은 밀양 송전탑 갈등 시나리오를 읽은 후 갈등인식을 이익과 가치로 나누어 각각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했다. 이후 문화 성향이 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문화성향에 따라 갈등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 송전탑 갈등에서 주요 쟁점은 전자파 피해를 우려한 건강권 침해, 비선호 시설 설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 그리고 주민 의견 대립으로 인한 지역 공동체의 연대의식 파괴이다. 평등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복합적인 밀양 송전탑 갈등을 생명, 환경, 안전,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가치갈등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했지만, 위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가치갈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 이익갈등 인식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것은 운명주의 성향으로 밝혀졌다. 운명주의 성향이 클수록 밀양송전탑 갈등을 이익갈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사회적 문제에 대해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운명주의 문화적 성향은 복합적 갈등을 보여주는 밀양송전탑 갈등을 보상과 재산권의 문제가 주요쟁점인 이익갈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1> 문화적 성향에 따른 갈등 유형 인식

	가치갈등 인식			이익갈등 인식		
	B	SE	t	B	SE	t
위계주의	-.152	.070	-2.166*	.079	.081	.976
개인주의	.025	.071	.355	.121	.082	1.482
평등주의	.420	.061	6.913***	.003	.070	.044
운명주의	.104	.055	1.901	.142	.063	2.238*
N	410			410		
F	13.494***			3.071**		

\*p< 0.05 \*\*p<0.01 \*\*\*p<0.001

연구결과는 문화이론의 기본 전제를 반영하고 있다. 위계주의 성향이 높아질수록 위험 문제와 공동체 연대 의식 균열 등 가치 갈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자파 영향과 같은 위험과 기술의 문제를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기존체제와 권위에 순응하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평등주의 성향은 위험과 관련한 조직과 집단의 노력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험으로부터 공공 권리의 보호, 평등한 기회 제공에 관심을 가지면서 밀양 송전탑 갈등을 가치 갈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 2) 조정 유형에 따른 문화적 성향과 갈등인식이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

조정 유형에 따라 문화적 성향이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갈등인식이 조절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촉진적 조정과 평가적 조정 상황에서 문화 성향과 갈등 인식의 상호작용이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모형1에서는 성별, 나이, 수입, 교육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 모형2에서는 문화적 성향, 모형3에서는 갈등인식, 모형4에서는 문화적 성향과 갈등 인식의 상호작용을 단계적으로 추가해 분석했다.

촉진적 조정에서 문화적 성향 중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은 개인주의 성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익갈등과 가치갈등 인식 모두도 협력의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익갈등 인식은 협력의지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가치갈등은 협력의지와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성향에서만은 개인주의 문화적 성향만 협력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갈등인식이 조절 작용을 하게 되면 위계주의, 개인주의, 운명주의 성향에서 협력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익갈등 인식은 위계적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이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했고, 가치갈등 인식은 운명주의 성향과 협력의지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개인주의 성향이 낮은 경우에는 밀양 송전탑 갈등을 낮은 이익갈등(M개인 저=3.28)으로 인식할 때보다 높은 이익갈등(M개인 저=3.61)으로 인식하는 경우협력의지가 높았지만, 개인주의 성

향이 높으면 비슷한 수준이기는 했지만 오히려 낮은 이익갈등(M개인 고=3.71)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높은 이익갈등(M개인 고=3.68)으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협력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운명주의와 가치갈등의 상호작용에서 높은 협력의지를 보이는 것은 운명주의 성향은 낮고 가치갈등 인식이 낮은 경우이다(M운명 저=3.69). 낮은 협력의지를 보이는 것은 운명주의 성향이 낮으면서 가치갈등 인식이 높은 경우이다(M운명 저=3.52). 운명주의 성향이 높으면 가치갈등 인식의 차이에 따른 협력의지간의 차이가 운명주의 성향이 낮을 때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촉진 조정 상황에서 평등주의 성향을 제외한 모든 문화적 성향 상황에서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등인식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은 시사점이 있다. 특히 개인주의와 운명주의가 낮은 상황에서는 각각 이익갈등과 가치갈등 인식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개인주의와 운명주의가 높은 상황에서는 갈등인식의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밀양 송전탑 갈등을 풀기위한 촉진적 조정에서 개인주의 성향이 낮은 경우 밀양 송전탑 갈등이 보상 문제와 결부된 높은 이익갈등으로 인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협력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운명주의 성향의 갈등 당사자들은 갈등을 회피하려는 운명주의 정도가 낮고 전자파 위험이나 공동체 갈등과 같은 가치갈등 인식을 낮게 할수록 갈등해결을 위한 협력의지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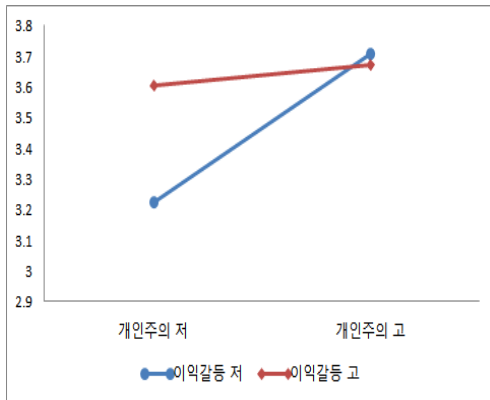
<표 2> 촉진적 조정에서 문화성향과 조정 유형의 상호작용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 4	
	B	SE	B	SE	B	SE	B	SE
상수	3.481***	.234	3.454***	.242	3.551***	.238	3.470** *	.223
성별	-.101	.080	-.069	.080	-.082	.078	-.109	.076
나이	.075*	.037	.078*	.039	.051	.038	.066	.038
수입	.038	.022	.028	.022	.034	.022	.033	.022
교육	-.060	.042	-.051	.042	-.055	.041	-.043	.040
위계주의			-.021	.086	-.041	.084	-.076	.083
개인주의			.246**	.087	.225**	.085	.223**	.083
평등주의			.029	.069	.114	.071	.066	.071
운명주의			.046	.065	.072	.064	.077	.063
이익갈등					.061	.047	.098*	.049
가치갈등					-.177**	.052	-.115*	.056
위계x이익							.224*	.096
개인x이익							-.341**	.111
평등x이익							-.118	.079
운명x이익							-.092	.080
위계x가치							-.153	.092
개인x가치							.094	.110
평등x가치							-.118	.080.
운명x가치							.174*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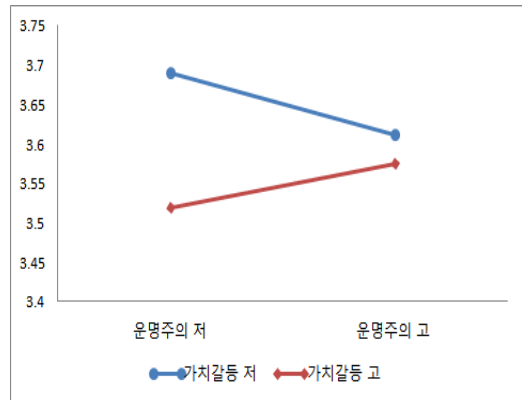
<표 2> 축진적 조정에서 문화성향과 조정 유형의 상호작용(계속)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 4
N	205	205	205	205
F	3.583**	3.522**	4.284***	3.583***
R <sup>2</sup>	.067	.126	.181	.272
ΔR <sup>2</sup>	.067**	.059*	.055**	.091**

※ 종속변수: 협력의지 \*p< 0.05 \*\*p<0.01 \*\*\*p<0.001



<그림1> 축진적 조정에서 개인주의와 이익갈등의 상호작용



<그림2> 축진적 조정에서 운명주의와 가치갈등의 상호작용

평가적 조정에서는 문화적 성향과 협력의지 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위계주의 성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고, 축진적 조정에서와 달리 갈등인식이 협력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평등주의는 가치갈등 인식의 정도에 따라 협력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개인주의는 이익갈등 인식의 차이에 따라 협력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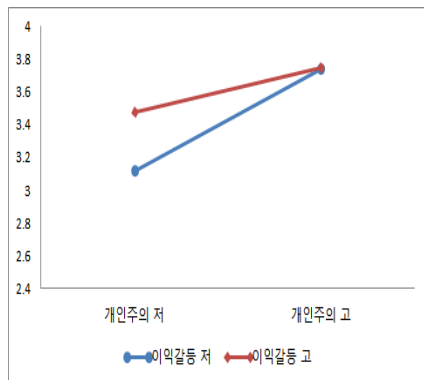
개인주의 성향의 갈등 당사자들은 축진적 조정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주의 성향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이익갈등(M개인 저=3.12)으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높은 이익갈등(M개인 저=3.48)으로 인식하는 경우 협력의지가 높았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갈등(M개인 고=3.75/3.74) 당사자의 경우 밀양 송전탑 갈등의 이익갈등 인식의 차이에 따라 협력의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평등주의 성향의 갈등 당사자들은 가치갈등 인식 수준에 따라 협력의지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평등주의 성향이 낮은 갈등 당사자들은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가치갈등을 높게 인식할 때(M평등 저=3.55) 낮게 인식하는 경우(M평등 저=3.51)보다 협력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평등주의 성향이 높은 당사자들은 가치갈등 인식이 낮은 경우(M평등 고=3.68)가 가치갈등 인식이 높은 경우(M평등 고=3.51)보다 협력의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강압적인 제도에 의해 인간 본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등주의 성향이 높은 갈등 당사자는 밀양 송전탑 갈등을 환경과 공동체의 위기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아야 협력의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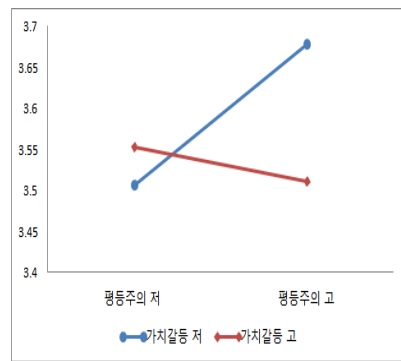
<표3> 평가적 조정에서 문화성향과 갈등인식의 상호작용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상수)	3.150***	.263	3.292***	.241	3.365***	.245	3.321***	.252
성별	.044	.089	.002	.082	-.014	.082	.017	.083
나이	.047	.042	.041	.039	.035	.039	.048	.040
수입	.028	.024	.002	.022	.001	.022	.002	.022
교육	.016	.044	.022	.040	.016	.040	.014	.040
위계주의			.169*	.082	.155	.082	.107	.083
개인주의			.402***	.080	.406***	.080	.402***	.081
평등주의			-.069	.074	-.026	.078	-.015	.079
운명주의			-.045	.067	-.060	.068	-.048	.070
이익갈등					.046	.052	.060	.053
가치갈등					-.115	.065	-.114	.065
위계*이익							.180	.112
개인*이익							-.226*	.097
평등*이익							.015	.078
운명*이익							-.013	.088
위계*가치							-.112	.108
개인*가치							.131	.104
평등*가치							-.208*	.104
운명*가치							-.003	.093
N	205		205		205		205	
F	1.059		6.364***		5.579***		3.963***	
R <sup>2</sup>	.021		.206		.223		.227	
ΔR <sup>2</sup>	.021		.185***		.017		.054	

※ 종속변수: 협력의지 \*p< 0.05 \*\*p<0.01 \*\*\*p<0.001



<그림3> 평가적 조정에서 개인주의와 이익갈등의 상호작용



<그림4> 평가적 조정에서 평등주의와 가치갈등의 상호작용

### 3) 문화성향과 협력의지를 매개하는 갈등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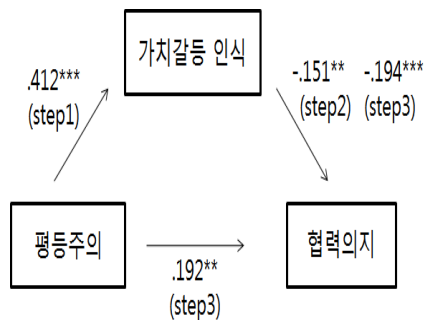
연구문제2에서 조정유형에 따라 문화적 성향과 갈등인식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연구문제3에서

는 문화적 성향과 협력의지간의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갈등인식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배론·케니(1986)가 제시한 4단계 검증 방법을 사용하지만, 케니의(1998)는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서 배론·케니(1986)가 제시한 1단계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직접적 효과 검증의 불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 간, 독립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영향력의 유의미성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Kenny, 2014). 연구문제3은 갈등 당사자들의 문화 성향과 갈등인식의 상호 작용을 통해 문화 성향과 협력의지 영향 관계에서 갈등인식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케니(2014)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촉진적 조정에서 평등주의 문화 성향은 가치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치갈등 인식이 협력의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등주의 성향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치갈등 인식이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촉진적 조정에서 가치갈등 인식은 평등주의 성향과 협력의지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촉진적 조정에서 평등주의 성향의 갈등 당사자들이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은 평등주의와 협력의지 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갈등 인식 작용의 매개가 있어야 설명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촉진적 조정 상황에서 평등주의 성향 갈등 당사자들의 협력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갈등 인식 수준을 고려한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갈등인식의 문화적 성향과 협력의지간의 관계 매개 검증에 대한 연구 문제3의 분석결과는 촉진적 조정에서 평등주의 문화적 성향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볼 때 갈등인식이 문화적 성향과 협력의지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이한 것은 평등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갖는 가치 갈등 인식은 평가적 조정에서는 조절 작용을 하지만, 촉진적 조정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림5> 촉진적 조정에서 평등주의 성향과 협력의지 간 가치갈등 인식 매개효과

<표4> 촉진적 조정에서 평등주의 성향과 협력의지 간 가치갈등 인식 매개효과

독립	매개	종속	단계	B	SE	t
평등 주의	가치 갈등 인식	협력 의지	1단계(독립-매개)	.412	.092	4.501***
			F	20.261***		
			N	205		
			2단계(매개-종속)	-.151	.049	-3.059**
			F	9.355**		
			N	205		
			3단계(독립-종속 매개-종속)	.192	.070	2.750**
			F	-.194	.051	-3.792***
			F	8.609***		
			N	205		
sobel test			2.539**			

## V. 결론

공공갈등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이 다양하고, 간접적 이해관계자까지 확대되는 경우에는 범위가 국민 전체로 확대될 정도로 이해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복잡적이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갈등당사자들의 인식이 제각각이고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 차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공공갈등은 위기 상황으로 확대되기 쉽기 때문에, 대규모 갈등을 유발하거나 갈등해결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상호 협의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으로서 조정이 주목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조정은 사법적 해결방안과 달리 당사자들의 편의에 따라 갈등 해결의 절차를 결정하고 과실의 규명보다는 갈등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유연한 분쟁해결 방법이다(Mackie, 1991). 특히 조정은 갈등 당사자 간 협상이 결렬되거나 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 갈등 국면을 당사자들의 관심사로 전환시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하도록 유도한다. 제3자로 개입하는 조정자는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이슈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며, 분쟁의 핵심적 내용을 분석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 연구는 공공갈등 상황에서 문화적 성향과 갈등인식의 작용, 조정상황에서 갈등 당사자들의 문제 인식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문화이론에서 제기하는 문화적 성향에 따른 인간, 자연, 위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Thompson, *et. al.*, 1990)를 공공갈등 상황으로 적용시켰다. 자연이라는 공통의 대상을 통제, 개발, 보호, 혹은 통제 불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위계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 문화적 성향은 위험 인식으로 연결되고, 이는 환경 문제와 불확실한 위험의 문제를 포함하는 공공갈등 상황에서 당사자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문화적 성향은 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자연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민감한 평등주의 성향은 가치갈등 인식

과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을 통제 대상으로 보고 권위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위계주의 성향은 가치갈등 인식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평등주의적인 문화성향을 보일수록 갈등을 가치와 결부하여 인식함으로써 갈등 해결을 점점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결과에서 나타났다.

갈등인식의 역할은 조정 유형에 따라 다르게 분석됐는데, 대화와 자체적인 문제해결을 중요시하는 촉진적 조정에서 개인주의와 위계주의 성향은 이익갈등 인식과, 운명주의 성향은 가치갈등 인식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해결을 위해 조정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평가적 조정에서는 개인주의 성향과 이익갈등 인식이 상호작용했고, 평등주의 성향은 가치갈등 인식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밀양 송전탑 갈등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의 갈등 당사자들은 조정 유형과 관계없이 개인주의 성향이 높으면서 이익갈등으로 인식하는 경우 협력의지가 높았다. 반면 높은 운명주의는 촉진적 조정에서, 높은 평등주의는 평가적 조정에서 가치갈등 인식이 낮은 경우에 협력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문화적인 성향과 갈등인식에 따라 조정의 유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 연구문제에서 부분적으로 검증된 갈등인식의 조절작용이 갈등 당사자의 내재적 요인인 문화적 성향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협력의지 간을 매개하고 문화적 성향과 협력의지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탐색했다. 분석 결과 촉진적 조정 상황에서 가치갈등 인식이 평등주의 성향과 협력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등주의 성향이 협력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인과관계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효과 검증으로 갈등인식이 문화적 성향과 협력의지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적으로 볼 때 조절변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것은 평가적 조정에서는 가치갈등 인식이 평등주의 성향과 협력의지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촉진적 조정에서는 가치갈등 인식이 평등주의 성향과 협력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촉진적 조정 상황에서 평등주의자는 가치갈등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만 협력의지가 떨어지지만, 평가적 조정 상황에서는 가치갈등 인식의 정도에 따라 평등주의 성향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어떤 식으로든 평등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갈등을 가치와 결부하여 인식하게 되며, 그것이 갈등의 해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정 상황에서 평등주의자들의 가치갈등 인식에 대한 이해 없이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갈등 당사자들 간의 갈등 해결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밀양송전탑 갈등과 같은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다수의 갈등은 지속적인 유인책 제공, 비용편익체계의 합리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미해결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Kim, 2003). 이런 경우 문화적 접근법은 갈등의 표면적 설명을 넘어서 이익 이면에 존재하는 가치적 측면을 이해하고, 이를 갈등 행위와 연결시켜 갈등 현상을 심도있게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김서용, 2005). 더불어 이해와 가치 갈등이 복합된 공공 갈등에서 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갈등 인식에 따라 조정의 탄력적 적용을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조정을 통한 공공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연구들은 조정자 역할, 조정의 과정, 조정의 기술 등에 관심을 갖고 조정에 참여하는 갈등 당사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조정이 전통적 갈등 해결책과 달리 갈등 당사자의 상호 이해를 통해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갈등 해결을 위한 주요 변수로서 갈등 당사자에 대한 집중과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접근에서 문화이론은 갈등 당사자로 통칭되는 공공 갈등의 이해 관계자들을 세분화해 갈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더 나아가 갈등 상황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공공갈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집단성 지향성과 사회의 규범이나 위계가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다르고 이것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조정 상황에서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 공공갈등의 해결이 당사자들의 인식 수준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일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런 견해에서 공공갈등은 사회 구성원의 분열로서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회 통합 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두환. 2005. 사회갈등해결에서 숙의적 시민참여와 대안적 분쟁해결 접근 비교: 전력정책 합의회의와 한탄강댐 조정소위를 사례로. 시민사회와 NGO. 3(1): 143-171.
- 김서용. 2005. 환경갈등의 문화적 분석: 새만금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43-66.
- 김영욱. 2014. 위험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욱. 2015. 갈등해소와 대체적 분쟁 해결: 협상, 조정, 중재 그리고 다양한 ADR 접근 방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재근, 채중헌. 2009. 정책갈등의 제3자 갈등조정 효과: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 기능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7(1): 5-40.
- 나태준, 박재희. 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서울: 한국 행정연구원.
- 문용갑. 2011. 갈등조정 심리학. 서울: 학지사.
- 박종민, 왕재선, 김영철. 2005. 환경적 가치와 신념의 근원: 脫물질주의, 정치이념 및 문화편향.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4): 389-407.
- 신은중. 2010. 공공분쟁에서의 조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갈등수준, 분쟁성격, 제3자 개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2: 181-203.
- 신창구. 2014. 공공분쟁해결 방법론. 서울: 지식과감정 출판사.
- 이선우, 홍수정. 2012. 송·변전설비 건설갈등해소를 위한 과정과 선택: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관련

- 갈등조정위원회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183-212.
- 임동진. 2011.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운영평가 및 갈등해결 방안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4): 533-560.
- 임유진. 2010. 갈등 해소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요소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갈등유형, 제3자 역할, 사과가 신뢰와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4(6): 229-260.
- 정정화. 2012.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접근: 공공토론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2(2): 311-337.
- 조성배. 2012. 송전선로 건설갈등의 장기화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밀양시 구간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2(2): 128-168.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이론과 기법(1,2). 서울: 논형출판사.
- 정규호. 2007. 정책갈등의 참여적 해결을 위한 합의형성적 접근의 의미와 과제: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2): 91-118.
- 하혜영. 2007.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3): 273-296.
- 하혜영, 이달곤. 2007.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 1995-2006년까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4): 329-356.
- Baine, D. and D. Sawatzky. 1991. Mediation Methods as an Adjunct to Counseling Couple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14: 273-84.
- Baron, R. M. and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rnard, S. E., J. P. Folger, H. R. Weingarten, and Z. R. Zumeta. 1984. The Neutral Mediator: Value Dilemmas in Divorce Mediation. *Mediation Quarterly*. 4: 61-74.
- Birke, R. 2000. Evaluation and Facilitation: Moving Past Either/Or.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309: 313-14.
- Burns, S. 2001. Think Your Blackest Thoughts and Then Darken Them: Judicial Mediation of Large Money Damage Disputes. *Human Studies*. 24: 227-249.
- Bush, R. B. 2002. Substituting Mediation for Arbitration: The Growing Market for Evaluative Mediation and What It Means for the ADR Field. *Pepperdine Dispute Resolution Law Journal*. 3: 111-114.
- Carole J. B. 2004. Facilitative Mediation: The Classic Approach Retains Its Appeal. *Pepperdine Dispute Resolution Law Journal*. 4: 279-281.
- Christen, C. T. 2004. Predicting Willingness to Negotiate: The Effects of Perceived Power and

- Trustworthiness in a Model of Strategic Public Rela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6(3): 243-267.
- Dake, K. 1991. Orienting Dispositions in the Perceptions of Risk: An Analysis of Contemporary Worldviews and Cultural Bias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3: 61-82.
- Dake, K. 1992. Myths of Nature: Cultur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isk. *Journal of Sociology*. 48: 21-37.
- Douglas, M. 1992. *Risk and Blame: Essays in Cultural Theory*. London: Routledge.
- Douglas, M. and A. Wildavsky. 1982.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ire, J. T. and D. W. Carment. 1993. Dealing with Disputes: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 81-95.
- Gulliver, P. 1979. *Disputes and Negotiation: A Cross-Cultural Perspective*. F.L.: Academic Press.
- Kenny. 2014. <http://davidakenny.net/cm/mediate.htm>
- Kenny, D. A., D. A. Kashy, and N. Bolger. 1998. Data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D. Gilbert, S. Fiske, and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Boston, MA: McGraw-Hill.
- Kriesberg, L. 2003. *Constructive Conflicts: From Escalation to Resolution(2nd)*.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Laue, J. H. 1990. The Emerg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ird-Party Roles in Conflict. J. W. Birtan and F. Dukes. eds. *Conflict: Readings in Management and Resolution*. N.Y.: St. Martin's Press.
- Langford, I. H., C. Marris, and T. O'Riordan. 1999. Public Reactions to Risk: Social Structures, Images of Science, and the Role of Trust. P. Bennett & K. Calman. eds. *Risk Communication and Public Heal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n, M. S. 2000. The Propriety of Evaluative Mediation: Concerns about the Nature and Quality of an Evaluative Opinion. Ohio ST.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16: 267-268.
- Lowry, R. 2004. Evaluative Mediation. J. Folberg, A. L. Milne, and P. Salem. eds. *Divorce and Family Mediation: Model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Marris, C., I. H. Langford, and T. O'Riordan. 1998. A Qualitative Test of the Cultural Theory of Risk Perceptions: Comparison with the Psychometric Paradigm. *Risk Analysis*. 18(5): 635-647.
- Mackie, K. J. 1991. Negotiation and Mediation: From Intelligent Haggling to Sleeping Giant. Mackie, K. J. ed. *A Handbook of Dispute Resolution: ADR in Action*. Routledge: New York.

- Maxell, J. P. 2000. Managing Conflict at the Country Level: The Use of Q Methodology in Dispute Resolution and Strategic Planning.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4(3): 338-354.
- Moore, C. W. 2003. *The Mediation Proc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3rd)*. CA: Hohn Wiley & Sons.
- Moore, S. A. 1996. Defining Successfu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ase Studies form Public Land Planning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 Review*. 16(3): 151-169.
- Pruitt, D. G. and P. J. Carnevale. 1993. *Negotiation In Social Conflict*. Buckingham, UK: Open University Press.
- Riskin, L. 1994. *Mediator Orientations, Strategies and Techniques*. Alternatives to the High Cost of Litigation.
- Riskin, L. 1996. Understanding Mediators' Orientations, Strategies and Techniques: A Grid for the Perplexed. *Harvard Negotiation Law Review*. 1: 7-51
- Scherer, T. M. 1997.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Federal Tax Arena: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Opens the Doors to Mediation.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2: 215-227
- Silver, C. 1996. Models of Quality for Third Parties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12: 37-93.
- Stamato, L. 1992.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s Mediation an Appropriate Forum? *Mediation Quarterly*. 10: 167-72.
- Stein, J. G. 1989. The Trigger, Stages, Functions, and Consequences of Prenegotiation. J. G. Stein. ed. *Getting to the Table: The Processes of International Prenegotiaion*.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Susan, C. I. and W. J. D. Kennedy. 2001. *Managing Public Dispute: A Practical Guide for Goverment, Business, and Citizens' Groups*. 정주진 역(2010). *공공갈등 해결: 정부, 기업, 시민단체를 위한 실전 가이드*. 서울: 아르케출판사.
- Susskind, L. and Thoas-Larmer, J. 1999. Conducting A Conflict Assessment. L. Susskind, S. Kearnan, and J. Thomas-Larmer eds. *The Consensus Building Handbook*. Thousand Oaks, CA: Sage.
- Thompson, M., R. Ellis, and A. Wildavsky. 1990. *Cultural Theory*. Boulder, CO: Westview Press.
- Wall, J. A., Jr. and J. B. Stark. 1998. North American Conflict Management. K. Leung and D. Tjosvold. eds. *Conflict Management in the Asian Pacific*. New York: John Wiley.
- Wall, J. A., J. B. Stark, and R. L. Standifer. 2001. A Current Review and Theory Development.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5(3): 370-391.

Wildavsky, A. 1987. Choosing Preferences by Constructing Institutions: A Cultural Theory of Preference Form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 3-21.

Wolff, K. 1964.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New York: Free Press.

---

**김영욱:** 미플로리다대 매스커뮤니케이션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위기관리의 이해",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현대 사회의 위험, 위기, 갈등에 대한 해석과 대응", "위험 커뮤니케이션", "갈등 해소와 대체적 분쟁 해결" 등이 있으며, 관심분야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위험 커뮤니케이션, 갈등해소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kimyw@ewha.ac.kr).

**함승경:**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hamsengyung@gmail.com).